

새로운 수도원 운동 - 본회퍼의 사상을 중심으로

강안일 (서울신학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역사적 배경

III. 『나를 따르라』와 『신도의 공동생활』에 드러난 “새로운 수도원 운동”의 모습들

1.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산상수훈의 말씀위에 세워진다.
2.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삶의 전 영역의 수도원화이다.
3.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말씀과 공동체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 있다.
4.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공동의 삶을 기반으로 하는 “외부를 향한 내부로의 집중”의 방향성을 가진다.

IV. 나가는 말 - 한국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갖는 의의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7.01>

• ABSTRACT •

New Monastic Movement: Focusing on Bonhoeffer's Thought

Kang, An-il(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first to identify what the “new monastic movement” means in Bonhoeffer’s letter of January 15, 1935. The understanding of the monastery is centered on Bonhoeffer’s understanding, but this study briefly discusses why he came to insist on the monastic movement in light of its historical background. In addition, the study scrutinizes how the “new monastic movement” had emerged from his theological activities since 1935. Particularly, since 1935, Bonhoeffer had focused on the followings of “Discipleship” and “Life Together” which centered on the theological discussions and the practice of the seminary at Finkenwalde,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pastoral candidate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new monastic movement” is built on the words of the Sermon on the Mount. Second, the “new monastic movement” is *monasticizing* every aspect of life. Third, the “new monastic movement” is in a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Word and the community. Fourth, the “New Monastic Movement” has a direction of “focusing on the inside toward the outside” based on the common life.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Bonhoeffer’s New Monastic Movement can present a good direction for the restoration of the Korean church’s social credibility.

Key words: Dietrich Bonhoeffer, New Monastic Movement, Discipleship, Life Together, Sermon on the Mount, Word and Community, Focusing on the inside toward the outside, Korean Church

I. 들어가는 말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1933년부터 1935년까지 런던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다. 런던 목회사역 후반부 시기이면서 핑켄발데(Finkenwalde) 신학원의 원장을 맡기 전인 1935년 1월 14일에 그는 그의 형 칼 프리드리히 본회퍼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회의 회복은 확실하게 새로운 수도원의 방식으로부터 온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단지 예수의 제자도 안에서 산상수훈에 따라 삶의 비타협성을 공동으로 가지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야 할 시간이라고 믿는다.”¹⁾

이 편지가 쓰인 이후로 개신교 안에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의 양상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²⁾ 물론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다.³⁾ 한국의 경우, 아직도 유럽 수도원의 영향과 토착적 운동의 영향으로 양분되어 있는 현실이고,⁴⁾ 신학적으로 정확한 논의와

1) Dietrich Bonhoeffer, *Dietrich Bonhoeffer Werke*, hg. v. E. Bethge, E. Feil, Chr. Gremmels, W. Huber, H. Pfeifer, A. Schönherr, H. E. Tödt, I. Tödt, München 1986-1991(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2-1999). 이후부터는 본회퍼의 전집의 표시를 'DBW'로 사용한다. DBW 13, 273.

2) 김홍일, “한국교회의 문체와 수도원 영성의 재발견”, 『기독교 사상』, 675 (2015), 49-50, 김홍일은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하고 있다. 1) “전통적인 수도자와 수녀들에게서 영감을 얻어 기도와 관상, 예배를 위한 모임, 사랑의 봉사를 위한 장소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2) “자신들의 정체성을 탁발수도 전통에서 찾고 있다.” 3) “두 그룹의 전통을 결합시키고 있다.”

3) 다음을 참고하라. 이덕주, “한국 개신교 수도원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맥락”, 『기독교 사상』, 675 (2015), 30-38; 배덕만, “한국개신교회와 수도원 운동”, 『기독교 사상』, 675 (2015), 51-59.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1930년대에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주장했던 본회퍼를 대화 상대자로 택하여 그의 “새로운 수도원 운동”(방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드러내어 한국교회의 수도원 운동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인 토양을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수도원⁵⁾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이는 또 다른 논문이 필요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기에 여기서는 해당 문헌⁶⁾을

-
- 4) 배덕만, “한국개신교회와 수도원 운동”, 『기독교 사상』, 675 (2015), 58.
- 5) 수도원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Monastery’이고, 그리스어로는 ‘monas’이고, 그 뜻은 ‘홀로’(allein), ‘단독’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 수도원은 홀로(단독으로) 묵상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목적으로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Wassilios Klein/ Fairy v. Lilienfeld, “Mönchtum I, II”, in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hg. von G. Krause G.Müller, Berlin 23, 1994, 이후 “TRE”로 약칭한다. TRE 23, 144.
- 6) 수도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는 TRE 23, 143-193참조: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Wolf-Dieter Hauschild, *Lehrbuch der Kirchen-und Dogmengeschichte Band I, Alte Kirche und Mittelalt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5), 261-335 참조; 번역서로는 Karl Suso Frank, 최형걸 옮김,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서울: 은성, 1997); Jonathan Wilson-Hartgrove, 손승우 옮김,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찾은 그리스도인 본연의 삶』(서울: 비아, 2016); Christopher Brooke, 이한우 옮김, 『수도원의 탄생: 유렵을 만든 은둔자들』(파주: 청년사, 2006); 일반논문으로는 유정우, “수도원 운동의 역사적 고찰과 신학적 이해”, 『논문집(평택리뷰)』(경가: 평택대학교, 1992), 362-383; 민경배, “수도원 운동과 교회 정화”,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서울: 연세대학교, 1994), 283-289; 최형근, “수도원 운동에 나타난 선교” 『교수논총』17(부천: 서울신학대학교, 2005), 379-408; 박상덕, 『동, 서방 교회 수도원 운동을 통한 기독교 영성의 고찰』박사학위 논문(경기도: 성결대학교, 2011); 손은실, “중세 수도원의 빛과 그림자”, 『기독교 사상』, 675 (2015), 12-21; 남성현, “수도적 영성과 전통이 개신교에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 『기독교 사상』, 675 (2015), 22-29; 이덕주, “한국 개신교 수도원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맥락”, 『기독교 사상』, 675 (2015), 30-38; 박효섭, “현대 세계와 수도원 영성”, 『기독교 사상』, 675 (2015), 39-45; 김홍일, “한국교회의 문제와 수도원 영성의 재발견”, 『기독교 사상』, 675 (2015), 46-53; 정용석, “수도원의 형성과 역사”, 『기독교 사상』, 682 (2015), 10-20; 이충범, “수도원의 낮과 밤”, 『기독교 사상』, 675 (2015), 21-29; 김선영, “16세기 종교 개혁가들과 수도원 개혁”, 『기독교 사상』, 675 (2015), 30-39; 배덕만, “한국개신교회와 수도원 운동”, 『기독교 사상』, 675 (2015), 51-59.

참고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다만 본회퍼가 수도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II) 그리고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1935년 이후로 그의 신학적인 활동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를 연구한다.(III) 특히, 1935년 이후 목회자 후보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핑켄발데 신학원에서 실천한 모습이나 신학적 논의들, 즉 『나를 따르라』와 『신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날 본회퍼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한국교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긴밀한 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IV)

II. 역사적 배경

본회퍼는 1930년 12월 13일 베를린에서 프리드리히 파퍼트(Friedrich Parpert)가 저술한 책⁷⁾을 비평한다. 거기에서 수도원에 대한 그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본회퍼는 서평에서 책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후에 저자에게 다음과 같은 비평적인 질문을 던진다. “개신교적인 수도원은 신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본회퍼가 파퍼트에게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자명하다. 본회퍼가 볼 때 아직 파퍼트에게는 수도원의 개념이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한 개신교적 사회학의 개념으로서의 수도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본 까닭이다.⁸⁾ 덧붙여서 본회퍼는 수도원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율법(Gesetz)의 개념을 사회학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파퍼트의 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⁹⁾ 이 비평에서 우리는

7) Friedrich Parpert, *Das Mönchtum und die evangelische Kirche*(München: Ernst Reinhardt, 1930); 이 책에 대한 본회퍼의 비평은 다음을 참고하라. DBW 10, 378-380.

8) DBW 10, 379.

9) 위의 책, 380.

본회퍼가 수도원에 대한 개념적인 역사나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수도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점에 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틀게도 이 비평을 보면서 본회퍼에게 “신학적, 사회학적 개념들을 해명하려는 학술적 열정만 보여줄 뿐, 공동 단체의 대의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¹⁰⁾고 비평한 바 있다.

그 이후 본회퍼의 문헌에서는 수도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가 영국 목회(1933-1935)시절 보낸 편지¹¹⁾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가 런던목회(1933-1935)에서 언급한 수도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런던목회를 하기 전에 일어난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회퍼는 1930년과 1931년 사이에 장학생으로 미국 뉴욕 유니온 신학 대학에 간다. 거기서 그는 그의 삶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특히 프랑스 평화주의자이면서 신학자인 잔 라세르(Jean Lasserre)를 만나게 되는데 그를 통해 본회퍼는 새로운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개념이 ‘산상수훈’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특히 하나님 말씀의 구체성에 대한 질문에 집중한다. 잔 라세르를 만남으로 본회퍼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되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제 본회퍼는 성경적인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이 단순한, 일반적인 하나님 사랑의 의지의 표현이 아님을... 이제 본회퍼는 비저항적인 싸움을 하는 간디에 관심을 가지며, 그는 프랑스 평화주의자인 잔 라세르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저 세상의 일이 아니라 지상의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다.”¹²⁾

10) Eberhard Bethge, 김순현 옮김, 『디트리히 본회퍼: 신학자-그리스도인-동시대인』(서울: 복있는 사람, 2014), 671.

11) DBW 13, 273.

12) H.E. Tödt, *Theologische Perspektive nach Dietrich Bonhoeffer*(München: Chr.

본회퍼는 잔 라세르를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의 구체성 앞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산상수훈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그런 그에게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이 된 사건은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히틀러는 집권하면서부터 독일교회를 완전히 히틀러화 하기를 원했다. 그것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집행했고, 특히 국가와 교회의 동일시화(Gleichschaltung)를 추진했다.¹³⁾ 이것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도전 앞에 서게 되었다. 교회는 히틀러 정권에 대해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런 도전 앞에서 교회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부류와 반대하는 부류로 나누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국가와 타협하는 세속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런 역사의 발걸음은 교회 역사적으로 수도원이 처음 발생하게 된 계기와도 비슷하다.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로마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데 이는 박해 받는 종교에서 자유와 보호를 받는 종교로 기독교의 자리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박해가 사라지고 자유가 주어진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서서히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비극이었다.¹⁴⁾ 급기야는 교회의 세속화¹⁵⁾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견잡을 수 없

Kaiser, 1993), 86.

13) Kang. An Il, *Von der "Nachfolge" zur "Ethik" der Verantwortung. Die Bedeutung der ethischen Konzeptionen Dietrich Bonhoeffers für die Theologie und Kirche in Südkorea*(Münster: Lit verlag, 2014), 17; G. Denzler/ V. Fabrizio, *Die Kirchen in Dritten Reich. Christen und Nazis Hand in Hand?, Band 1: Darstellung*(Frankfurt am Main, 1984), 35.

14) 이덕주, "한국 개신교 수도원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맥락", 앞의 책, 30-38.

15) 종교 사회학적으로 "세속화"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면서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이다. 그래서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학자들은 "사회와 문화의 여러 영역들이 종교제도와 상징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의 쇠퇴 현상"으로, 또한 "종교적 사고, 행위 및 제도가 사회적 의의를 잃어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세속화의 정의가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또

게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한 것이 수도원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1933년 이후 독일교회 안에 일어난 세속화 현상이야말로 본회퍼에게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운동의 필요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본회퍼는 이 새로운 운동이 산상수훈 말씀에 구체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사회변동 속에서 교회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며,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교회가 사회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호호하면서 사회와 어떤 차이점도 없이, 사회의 가치체계가 교회의 가치체계와 동일시되는 것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에 변형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말한다. 이런 세속화의 상반된 정의들은 현대 종교사회학 전통 안에서 “양대 이론적 지주들로 군림해 온 막스 베버(Max Weber)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의 종교변동론에서 유래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분명히 베버는 세계가 점차 완전히 마법(종교)에서 해방 될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했던 반면에, 뒤르켐은 계속되는 사회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하나의 사회로서 남아 있게 되는 것은 그를 총체적으로 덮고 있는 것, 즉 종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김중서, 『종교 사회학』(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131-157참조; 또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속화는 16세기 초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교회와 수도원이 소유한 땅을 국가 차원에서 회수해 나라 위한 예산으로 삼았다고 하는 데서 비롯됐다. 이처럼 좋은 의미에서 ‘세속화’는 교회가 세속 사회를 위해 소유를 내어주고 세속 사회를 섬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쁜 의미의 ‘세속화’는 교회가 세속 문화에 용해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하거나 기독교적 근원과 단절된 세속 문화가 교회 안으로 침식해 들어오는 경우다. 우리는 이를 세속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세속화’는 좋은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교회의 ‘세속주의’는 나쁜 의미를 갖는다.” 이형기,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교회론과 재정의 사용”, 『목회와 신학』 통권 328(2016. 10), 53. 필자는 “세속화”의 개념을 종교사회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부정적인 의미로 소급하여 사용하였다.

- 16) 최형근 박사는 수도원 운동의 기원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사막으로 들어간 데서 기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채택되어 국가의 보호 아래 성직자의 권위와 다양한 교회의 제도를 형성해 나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제도화와 성직자의 부패에 대한 평신도의 저항운동의 성격에 띠고 있다.” 셋째로, “수도원 운동이 베네딕트에 의해 확정되어 수도원의 규칙을 갖게 되고 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설립되면서 자연히 교회와의 연계성을 갖게 되었다.” 최형근, “수도원 운동에 나타난 선교”, 앞의 책, 382-383.

서 베틀게는 1933년 시대적인 배경과 『나를 따르라』의 관계성을 평가할 때 『나를 따르라』의 주제와 근본내용들이 1933년에 이미 산상수훈을 해석한 것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¹⁷⁾

본회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1933년 10월부터 1935년까지 영국 런던에서 독일인 공동체를 목회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그는 에큐메니칼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특히 파넨(Fanö)에서 미국체류기간에 만난 잔 라세르를 다시 만난다.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프랑스 북부지역의 광부 공동체를 방문한다. 그곳에서 본회퍼는 가난한 자들과 깊은 연대감 속에 있는 라세르를 발견하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광부 공동체를 보면서 본회퍼의 생각에 큰 변화가 다시 일렁이게 되었다.¹⁸⁾

또한 본회퍼가 영국으로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독일교회가 어떻게 히틀러 정권의 정책에 저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이런 고민 가운데서 특히 간디로부터 저항의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그러면서 슈텔린(Stählin)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개신교적 삶의 공동체는 무엇을 유지하여야 하는가?”¹⁹⁾ 이 질문에 슈텔린 교수는 본회퍼에게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개신교 개혁운동인 베르노이헨 운동(Berneuchener Bewegung)²⁰⁾을 소개시켜준다. 이 운동은 예배의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17) E. Bethge, *Dietrich Bonhoeffer. Theologe - Christ - Zeitgenosse*(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9. Auflage 2005), 523; 그린은 『나를 따르라』의 핵심사상이 실존적이고 신학적으로 1927년부터 1933년까지 시기에 속하였다고 주장한다. Clifford J. Green, *Freiheit zur Mitmenschlichkeit. Dietrich Bonhoeffers Theologie der Sozialität*(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4), 15.

18) Ferdinand Schlingensiepen, *Dietrich Bonhoeffer*(München: C.H.Beck, 2003), 191.

19) 위의 책, 191.

20) 이 운동에 관해서 다음을 참고하라. Peter C. Bloth, “Berneuchen”, in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vierte, völlig neu bearbeitete Aufl., hg. von K. Galling/D. S. Browning/ B. Janowski/ E. Jüngel(Tübingen: Mohr Siebeck Band 1, 1998), 이후 “RGG”로 사용. RGG 4판, 1326-1327; 또한 온라인상으로는 <https://de.wikipedia>.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룹이었다. 이들은 이런 생각들을 수도원에 서 가져왔다. 본회퍼는 이런 만남을 통해 새로운 독일교회의 회복 운동을 위해 수도원 운동이 갖는 의미를 계속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회퍼는 슈텔린을 통해 수도원에 대한 통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이에 슈텔린이 달렘회의²¹⁾의 결정에 대해 반대함으로 인해 더 이상 슈텔린을 파트너로 취급하지 않았다.²²⁾ 그 대신에 본회퍼는 런던에서 만난 브루더호프(Bruderhof) 운동의 창시자인 아르놀드의 아들, 폰 니몰러(Von Niemöller)를 주목한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본회퍼는 훈련(Exerzitionen), 고해(Beichte)와 다른 요소들을 가진 개신교 수도원의 방법을 원하고, 이를 위해 간디로부터 배우기를 원한다”²³⁾고 언급한다. 폰 니몰러의 말에서 본회퍼는 개신교적 수도원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간디의 사례를 배우기 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회퍼는 독일교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수도원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더욱 공고하게 본격적으로 가다듬었다. 간디를 방문하려고 한 계획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영국에 있는 3곳의 수도원²⁴⁾을 방문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 수도원들은 개신교 교회의 공간 안에서 공동의 삶을

org/wiki/Berneuchener_Bewegung

21) 1934년 10월 10일에 작성된 달렘회의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교회, 목회자, 장로에게 기존의 제국교회 정부와 그 관청의 지시를 받지 말고, 제국교회 정부에 계속 복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협력하지 말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독일 개신교 고백총회의 지시와 고백총회가 승인한 기구들의 지시를 받으라고 촉구한다.” Eberhard Bethge, 김순현 옮김, 앞의 책, 586; Eric Metaxas, 김순현 옮김, 『디트리히 본회퍼』(서울: 포이에마, 2011), 364.

22) Ferdinand Schlingensiepen, 앞의 책, S.192.

23) 위의 책, S.192.

24) 3곳의 수도원은 다음과 같다. 1)1865년 설립한 옥스퍼드에 있는 성 요한 복음주의의 공동체(Society of St. John the Evangelist), 2)1892년 세워진 Mirfield에 있는 부활의 공동체(Society of the Resurrection), 3)1893년에 세워진 Kelham에 있는 성스러운 선교의 공동체(Society of the Sacred Mission).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 방문은 본회퍼가 고백교회의 설교세미나 핑켄발데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근간이 된 신학적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²⁵⁾ 핑켄발데에서 세워진 목회 후보자 훈련원이 “순수한 교리, 산상수훈 그리고 제의를 지지하게 여기는 교회적이고 수도원적인 학교”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해주었다.²⁶⁾ 본회퍼는 이런 배경에서 “새로운 수도원 운동”에 대한 편지를 그의 형 칼 프리드리히 본회퍼에게 보낸 것이다.²⁷⁾ 1935년부터 전개된 핑켄발데 사역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III. 『나를 따르라』와 『신도의 공동생활』에 드러난 “새로운 수도원 운동”의 모습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인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새로운 수도원 운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목회적인 교회적 적용은 본회퍼에게서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핑켄발데 사역 이후에 그는 특정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고 저항 시기에 주변 지역들을 방문하는 저항 여행²⁸⁾ 한 후에 히틀러 정권에 의해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핑켄발데에서 “새로운 수도원 운동”의 주장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특히 핑켄발데 사역의 결과물인 『나를 따르라』와 『신도의 공동생활』에 집중하면서 추적하고자 한다.

25) Ferdinand Schlingensiepen, 앞의 책, S.193.

26) DBW 13, 204.

27) 위의 책, 273.

28) DBW 16, 127; Kang. An II, 앞의 책, 103-132를 참고.

1.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산상수훈의 말씀위에 세워진다.

본회퍼가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처음 논한 것은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 시절보다 더 이른 시기였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말씀에 접근하는 “새 통로”²⁹⁾를 확보한 것은 그가 뉴욕에서 만난 동갑내기 유럽 친구 장 라세르를 만나고부터라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는 라세르를 만난 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훗날 이런 회고를 남겼다.

“나는 처음으로 성서에 이르렀습니다. …… 이미 나는 여러 번 설교를 했고, 교회에 관해서 많은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글을 썼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고, 도리어 아주 난폭하고 순종할 줄 모르며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 그것이 나를 해방시켰다. 특히 산상수훈.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다르게 되었다. …… 그것은 커다란 해방과 같은 것이었다.”³⁰⁾

라세르를 만나고 난 후 런던 목회현장에서도 산상수훈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되었다. 1934년 4월 28일에 그가 런던에서 에어빈 슈츠(Erwin Sutz)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시기에 산상수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뒤에 찾아오는 본격적인 전투는 그저 믿으면서 견디는 것이어야 하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서 자신의 말씀과 함께 고백하실 것이네. 하지만 그때까지는 많이 믿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견뎌야 하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 산상설교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네. 바르트 신학은 또 한 번 밟힐 것이네. …… 그리고 이 사실이 분명히 인정받게 될 것이

29) berhard Bethge, 김순현 옮김, 앞의 책, 263; Peter Zimmerling, Bonhoeffer als Praktischer The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Ruprecht, 2006), 67.

30) 이 인용은 DBW 14,113과 Sabine Dramm, 김홍진 옮김, 『본회퍼를 만나다. 그의 삶, 신앙, 신학, 사상 이해하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63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네.”³¹⁾

또한 베트게도 본회퍼가 런던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목회하는 동안 산상수훈이 그에게 본질적인 부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런던에서 1년 6개월 체류하면서 교회 투쟁을 벌이고 에큐메니칼 협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특히 후자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공동체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그의 사역은 투쟁의 일부가 되었다. 이 시기에 그의 가장 본질적인 참여는 ‘산상수훈과 ‘제자도’에 대한 숙고 속에서 이루어졌다.”³²⁾

또한 계속해서 런던 목회시기에 본회퍼가 산상수훈에 얼마나 집중하였는지를 베트게의 평가를 들어보자.

“본회퍼는 유별난 사람이었다. 그는 투쟁 조합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고백교회 동료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산상수훈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기 때문이다. 반면 산상수훈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 외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외톨이가 되었다. 그가 신앙고백과 이단 배격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회퍼는 산상수훈으로 인한 비생산성을 막기 위해서는 고백에 입각하여 찬탈자들에게 저항해야 하고, 고백으로 인한 열광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에 입각하여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³³⁾

이처럼 산상수훈은 본회퍼의 런던 목회시기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31) Eberhard Bethge, 김순현 옮김, 306; DBW 13, 128.

32) 위의 책, 495.

33) 위의 책, 555; Peter Zimmerling, 앞의 책, 68. 짐머만은 『나를 따르라』에서 해석한 산상수훈을 당시 고백교회의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시금식으로 해석하였다고 말한다.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새로운 수도원 운동”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져 있었기에 “새로운 수도원 운동”과 산상수훈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형성해갔다. 그리고 런던목회 마지막 시기는 앞으로 고백교회에서 신설 중인 신학원의 원장직을 앞두고 준비하는 시기였기에, 앞으로 신학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산상수훈과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었다.

“산상수훈을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면이 깨끗해지고 참으로 반듯해지리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산상수훈을 깊고 진지하게 대함으로써 힘의 원천을 얻어 온갖 마법과 유령을 허공으로 흩어 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불꽃으로 살라서 잔해만 약간 남을 때까지 말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실로 새로운 종류의 수도생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수도생활과 옛 수도생활의 유일한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본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않고 산상수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일을 위해 사람들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³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회퍼는 핑겐발데 신학원에서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나를 따르라』이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처음에는 “값비싼 은혜”, “제자직으로의 부름”, “단순한 순종”, “제자직과 십자가”, “제자직과 개체”³⁵⁾를 다루고, 그 이후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주요 부분이³⁶⁾ 나온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울서신을 근거로 핑겐발데에서 행한 강의들로 채워진다. 처음 부분에 제자도에 관한

34) Eberhard Bethge, 김순현 옮김, 앞의 책, 671.

35) Dietrich Bonhoeffer, 손규태, 이신건 옮김, 『나를 따르라』(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3-113.

36) 위의 책, 114-249;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이해를 위해서 Kang, An II, 앞의 책을 참고하라.

내용이 나오는 것은 본회퍼에게 산상수훈과 제자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⁷⁾

『나를 따르라』에서 본회퍼가 해석한 산상수훈의 해석을 간략하게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³⁸⁾ 본회퍼는 우선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범성”에 관해 언급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그 당시 유대인들과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더 나은 의”³⁹⁾라고 본회퍼는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어 제자들에게 “선사된 의”이고, “나를 따르라는 부름을 통해서만 선사되는 의”이다. 제자들이 홀로 율법을 성취하신 분과의 사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이다.⁴⁰⁾ 그래서 “제자들의 의는 십자가 아래 있는 의”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름 때문에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배고픈 자들, 온유한 자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 박해 받는 자들의 의이고, 예수의 부름 때문에 세상의 빛과 산 위의 도시가 되는 자들의 가시적인 의”⁴¹⁾이기도 하다. 이런 십자가 아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의 온전한 비범성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밀성에 관해” 언급한다. 여기서 그는 비범성과 은밀성의 역설적인 관계를 설명한다. “제자의 길은 어느 정도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⁴²⁾ 이런 역설적인 관계가 갖는 문제점에 대

37) Eberhard Bethge, 김순현 옮김, 495 참고.

38) 『나를 따르라』에 나타난 제자도 윤리에 대해서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고재길,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에 나타난 제자의 윤리”, 『장신논단』45권 2(2013), 117-143.

39)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 앞의 책, 141.

40) 위의 책, 142.

41) 위의 책, 142.

42) 위의 책, 180.

해 본회퍼는 십자가에서 그 해결점을 찾는다. “십자가는 필연적인 것이고, 숨겨진 것인 동시에 보이는 것, 비범성이기도 하다.”⁴³⁾

계속해서 “제자 공동체의 선별”이라는 부분에서 제자를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다. 특히 그 관계성을 결속이라는 개념과 중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 “제자는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됨으로써만 살아간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그를 제자로 만드는 것은 그의 삶의 새로운 잣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곧 중보자와 하나님 아들 자신”이라고 말한다.⁴⁴⁾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것은 본회퍼가 말하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예수가 다가서는 사람들로 본다. 제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오직 예수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서기 때문이다. 예수는 제자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서며, 제자는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제자와 다른 사람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자신들의 견해와 잣대와 판단을 직접 들이댈 수 있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만남이 아니다. 제자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가 친히 만나는 사람들이다.”⁴⁵⁾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마지막 부분 “사도들”에서는 “사도들의 임무와 능력이 오직 예수의 말씀에 기초”⁴⁶⁾함을 강조한다. 다시 한 번 본회퍼가 꿈꾸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철저하게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히 사도는 말씀 곁에 머물고, 말씀은 사도 곁에

43) 위의 책, 181.

44) 위의 책, 209.

45) 위의 책, 210.

46) 위의 책, 236.

머문다.”⁴⁷⁾

2.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삶의 전 영역의 수도원화이다.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의 첫 번째 장 “값비싼 은혜”에서 수도원에 대한 생각을 루터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마르틴 루터는 1505년 7월 에어푸르트(Erfurt)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엄수파 수도원에 들어간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도규칙을 따르며 생활한 루터는 수도원 생활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고행하였다. “매일의 훈련을 통해 예수의 엄격한 계명들을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수도원 생활은 그리스도교의 세속화에 맞선, 은혜의 평가절하에 맞선 생생한 저항이 되었다.”⁴⁸⁾ 그러나 본회퍼는 특정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도원 생활이 두 가지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다. 먼저는 교회가 수도원을 통해 세속화의 저항에 감내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이것이 “저항을 상대화 하였고”, “저항으로부터 자신의 세속적인 생활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는 것이다.⁴⁹⁾ 이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원 생활은 일반 교인들에게는 의무로 부가 할 수 없는 개인의 특별한 행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효력은 특별한 자질을 지닌 사람들의 특정 집단에게 국한되었다”고 본회퍼는 진단했다.⁵⁰⁾ 두 번째의 치명적인 결과는 이 수도원적 길이 오히려 특정 집단에 특별한 업적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본회퍼의 평가를 직접 들어보자.

47) 위의 책, 246.

48) 위의 책, 38.

49) 위의 책, 38.

50) 위의 책, 38.

“이로써 교회는 자체 안에서 수도원 생활의 길을 터놓음으로써 세속화에 대한 모든 공격을 피해 나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더 쉬운 길을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정당화할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가 수도원을 통해 값비싼 은혜에 대한 원시교회의 이해를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 역설적으로 교회의 세속화를 다시금 최종적으로 정당화한 꼴이 되고 말았다. 여하튼 수도원의 결정적인 잘못은 -예수의 뜻에 대한 내용적인 오해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제자직의 은혜로운 길을 따른 것에 있지 않았다. 수도원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로부터 멀어지게 된 까닭은 오히려 자신의 길을 몇몇 사람들의 자유로운 특별한 업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공로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⁵¹⁾

이 치명적인 결과들은 루터로 하여금 여러 사실들을 깨닫게 하였다. 특히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 그에게 보여 주신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인간의 특별한 공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과 “수도사의 세상 도피는 가장 정교한 세상 사랑이라는 사실”⁵²⁾이다. 이런 깨달음이 루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본회퍼는 “수도원에 처음 들어갈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 곧 자신의 경건한 자아만은 버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것마저 버렸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따랐다”⁵³⁾고 평가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루터는 수도원을 떠나 세상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루터의 발걸음을 본회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수도원을 떠나 세상 안으로 들어간 루터의 발걸음은 원시교회 이래 세상

51) 위의 책, 38-39.

52) 위의 책, 39-40.

53) 위의 책, 40.

에 가해졌던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다. 수도사가 세상에 던졌던 거부는, 세상이 자신 속으로 되돌아왔던 자를 통해 경험했던 거부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놀이와 같은 것이었다. 이제 공격은 전면적으로 개시되었다. 예수의 제자직은 이제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수도원 생활이라는 특별한 상황 아래서, 그리고 개인의 특별한 공로로 가볍게 여기며 실행되었던 일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명령이 되었다.”⁵⁴⁾

루터가 수도원을 떠나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을 해석하면서 분회 펴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수도적인 삶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삶의 모든 영역의 수도원화인데⁵⁵⁾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분명히 한다. “새로운 수도원 운동”의 방향성은 삶의 전 영역을 수도원화하는 것이요, 그 수도원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54) 위의 책, 40-41.

55) 김선영, “16세기 종교개혁가들과 수도원 개혁”, 앞의 책, 36. “루터는 특정한 시공에 한정된 수도원 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그런 수도원 제도를 폐지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래적 수도원 정신과 삶 자체까지 없애고자 한 적은 없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다시 살려 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 추구하고 구현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면에서 시공에 제한된 수도원을 폐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전 삶의 영역을 수도원화하는 것이 루터의 의도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루터 자신도 그의 『대교리문답』에서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고 수도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도사들은 영적 직무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카르투시오 수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명하신) 참된 선행을 스스로 금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에 따르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오히려 더욱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Martin Luther, 최주훈 옮김, 『대교리문답』(서울: 복있는 사람, 2017), 137-138

3.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말씀과 공동체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 있다.⁵⁶⁾

본회퍼는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세운 관계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된 완전한 고립 상황에서 예수께서 인간들을 말씀의 부르심 안에서, 사람들을 자신과 묶으심으로(Bindung)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다고 한다. 이 공동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직접성도 없다. 이런 직접성은 “기만”이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공동체에서는 모든 것이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일어나야 함을 분명히 한다.⁵⁷⁾ 그의 말을 들어보자. “예수 이래 제자들은 그 어떤 자연적, 역사적, 경험적 직접성도 가질 수 없었다. 인식하든 못하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개인과 민족 사이에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직접성은 곧 기만이다.”⁵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현실성은 『그리스도론』 강의에서 밝힌 것처럼 인간의 어떤 관념의 언어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단지 귀나 심장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육체적인 인간을 필요로 하신다”⁵⁹⁾고 본회퍼는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과 묶여있는 몸은 세상 앞에서 교회의 형태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세상 속에서 몸이 보여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본회퍼는 말씀이 가진 운동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말씀

56) 이 부분은 필자가 쓴 논문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강안일, “말씀과 공동체의 관계-본회퍼의 저작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제48집, 2016), 23-29.

57)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라라』, 앞의 책, 102-107.

58) Dietrich Bonhoeffer, 유석성 옮김, 『그리스도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45.

59) 위의 책, 285: 본회퍼는 인간의 관념과 같이, “하나의 진리, 하나의 교훈, 하나의 종교는 자신의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몸이 없다”고 말한다.

은 인간을 얻기 위해 길을 나선다”⁶⁰)고 한다. 인간을 얻기 위해 길을 나서
는 말씀은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또한
교회를 향해 움직인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용
납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교회를 향해 움직이는 운동성
을 지닌다.”⁶¹)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본회퍼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다.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 하나의 진리가 있고, 다른 한편
으로는 하나의 교회가 있어서, 설교자가 이 말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려고, 이 말씀을 취하고 다루고 움
직이는 것”⁶²)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회퍼는 그것이 아니라
고 분명히 언급한 후에, 말씀의 자유로운 자발성을 강조한다. “말씀은 철
저히 자발적으로 이 길을 간다. 설교자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말씀의 이런 독자적인 운동을 돕는 것이고, 말씀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⁶³) 이처럼 본회퍼의 이해에 따르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
간다. 이것은 말씀이 가진 자유롭고 역동적인 운동성 때문이다. 말씀이
가진 이 역동성을 성령께서 사용하시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 그 결과로 말씀의 역동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
의 능력으로 우리 한가운데”⁶⁴)로 친히 들어오신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몸은 “선포의 공간과 함께 교회 질서의 공간도”⁶⁵) 요구한다. 그리

60)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 앞의 책, 287; 이 말은 외팅거(Oettinger)에게서
본회퍼가 인용한 말이다. “몸은 하나님의 길의 종국이다.” Dietrich Bonhoeffer, 강성
영 옮김, 『창조와 타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03 (각주 16)참조.

61)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 앞의 책, 287.

62) 위의 책, 287.

63) 위의 책, 287.

64) 위의 책, 288.

65) 위의 책, 290.

고 더 나아가 “교회는 단지 예배와 질서만이 아니라 그 지체들의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세상의 공간을 요구한다.”⁶⁶⁾ 이런 공간들을 요구하는 것은 주시하다시피 말씀의 자발적인 운동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말씀은 교회 공간을 넘어 일상으로 공간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모이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말씀과 공동체의 긴밀한 역동성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것에 대해 다섯장으로 구성된 『신도의 공동생활』은 각 장을 시작할 때 성경구절로 시작하고, 마무리 할 때는 “말씀아래서의 공동생활”을 강조하며 마무리 한다. 이미 책의 구성 안에서도 말씀과 공동체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⁶⁷⁾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밖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건네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⁸⁾ 그런데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사로잡은 후에,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회퍼는 우리 인간의 외부에서 인간 내부로 들어와 다시 외부로 나아가려는 말씀의 특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⁶⁹⁾고 말한다.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갖는 공동체적 특성이요, 그것이 그 말씀 안에 본질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말씀을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더 공동체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회퍼가 말하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모인다면 거기에는 이런 역동성을 가

66) 위의 책, 292.

67) Albrecht Schödl, *Unsere Augen sehen nach dir. Dietrich Bonhoeffer im Kontext einer asketischen Theologie*(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6), 188.

68) Dietrich Bonhoeffer, 정지런, 손규태 옮김, 『신도의 공동생활. 성서의 기도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6.

69) 위의 책, 27.

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에 대해 본회퍼는 더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간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는 형제를 필요로 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를 필요로 한다.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보다 약하다.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하다. 이로써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목적이 드러난다. 즉 그들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서로 만난다.”⁷⁰⁾ 여기서 특별히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서로 만난다는 것은 말씀만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본회퍼가 직접 말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⁷¹⁾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점에서 본회퍼는 말씀 안에서만 사귄이 가능하고 교회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런 후에 그는 그의 책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말씀을 서로 읽고 나누는 것을 통해 계속되는 사귄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공동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⁷²⁾ 그는 그것을 “공동 기도회”(gemeinsamen Andacht)라고 표현한다.⁷³⁾

이런 공동기도회는 본회퍼에 의하면 “홀로 있음”과 분리됨 없이 연관성을 가져야 함이 강조된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또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⁷⁴⁾

70) 위의 책, 27.

71) 위의 책, 27.

72) 위의 책, 49-62 : 본회퍼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식구들이 교대로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 것”(60-61)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성경을 연속적으로 읽어가는 것 즉 “연독(lectio continua)”이라고 부른다.(57) ; 또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Albrecht Schödl, *Unsere Augen sehen nach dir. Dietrich Bonhoeffer im Kontext einer asketischen Theologie*, 219.

73) 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성서의 기도서』, 앞의 책, 49.

74) 위의 책, 83.

여기서 홀로 있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침묵하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침묵은 단순한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홀로 있는 자가 “말씀에 매인 침묵”⁷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홀로 있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를 세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세우고 결속시키는 말씀에는 침묵이 동반”⁷⁶⁾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 앞에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은 분리됨 없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길을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늘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공동의 삶을 기반으로 하는 “외부를 향한 내부로의 집중”의 방향성을 가진다.

분회퍼는 1935년 9월 6일 핑켄발데(Finkenwalde)에 공동의 삶을 기반으로 하고 “전형적인 수도원”⁷⁷⁾의 형태를 보여주는 “형제의 집”(Bruderhaus)을 세우면서 몇 가지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언급한다.⁷⁸⁾ 이것을 살펴보면 분회퍼가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통해 무엇을 추구 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분회퍼는 목회자들, 특히 개체화 속에 있는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이 공동체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삶으로 함께 모여야 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에 임하도록 용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는 주의 계명에 대한 순종 안에서 공동체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이 형제의 집은 교회 투쟁 안에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 또는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영역을 위해 자유롭고, 전투의 준비를

75) 위의 책, 85; 분회퍼는 그리스도인이 혼자 있을 때 다음 세 가지를 가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성서 묵상,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86).

76) 위의 책, 84.

77) Eberhard Bethge, 김순현 옮김, 앞의 책, 679.

78) DBW 14, 76-78.

갖춘 그룹을 준비시켜야 한다. 네 번째로 이 공동체는 목회자와 평신도에 게 교회 안에서 그들의 임무를 위해 영적인 피난처(Refugium)을 제공해야 한다⁷⁹⁾고 주장한다.

이렇게 “형제의 집”을 세울 때의 고려점을 열거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개별적인 사람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고백교회의 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⁸⁰⁾ 여기서 본회퍼가 추구하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의 강조점을 알 수 있는데, 세상과 동떨어진 영적인 운동이 아니라 공적인 세계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이다.⁸¹⁾ 이것은 『나를 따르라』의 방식대로 말한다면 제자들의 의의 가시적인 비범성과 은밀성의 변증법적인 관계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런 “형제의 집”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의심과 비판이 있었다. 즉 핑켄발데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삶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오히려 수도원적으로 세상과 동떨어진 실존 안에서 이루어지는 “퇴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⁸²⁾ 또한 어떤 이들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 “가톨릭적인 열광주의자들”, “수도사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⁸³⁾ 그러나 이런 비판과 의심스러운 시각에 대해 본회퍼는 핑켄발

79) DBW 14, 76-78; Ruth Gütter, *Innerste Konzentration für den Dienst nach außen*(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0), 50 참고; Eberhard Bethge, 김순현 옮김, 앞의 책, 677. 베틀게는 여기서 간략하게 제안서의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 Florian Schmitz, *Nachfolge. Zur Theologie Dietrich Bonhoeffers*(Goettingen: Vandenhoeck&Ruprecht, 2013), 403. 슈미츠는 『나를 따르라』를 “하나의 신학적인 저항문서”라고 평가한다. 2013), 191.

80) Ruth Gütter, 앞의 책, 50.

81) 그래서 우리는 『나를 따르라』를 단순한 세상과 동떨어진 제자도에 대한 신앙비밀 문서가 아니라 세상 한 복판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룰 수 있는 공적인 읽기가 가능한 것이다. 김현수, “디트리히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에 대한 하나의 공적인 읽기”, 『신학과 사상』제160권(2013), 199-235.

82) Ruth Gütter, 앞의 책, 50.

데 안에 “형제의 집”을 세우면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핑켄발테의 사역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진행되는 “수도원적 분리가 아니라 외부로 향한 내부로의 집중”⁸⁴⁾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다.

분회퍼가 말하는 “외부로 향한”이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핑켄발테 주변의 대학교과의 협력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상황 그리고 포메른 교회(pommerschen Kirche)들의 목회자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⁸⁵⁾ 그러니까 공동체 외부로 향한 시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수도원적 운동이 아니라 외부로 나아가는, 즉 삶의 영역에서 수도원적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체가 속한 주변 사회와 함께 호흡해야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내부로의 집중”은 다음을 의미한다. 하루 일과를 엄격한 예배적인 순서의⁸⁶⁾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기도, 성경읽기 그리고 고해(Beichte)의 의미를 강조하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⁸⁷⁾ 이것은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공동의 말씀을 나누는 것, 홀로 있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주의화가 아니라 홀로 있는 것 자체도 공동체와의 긴밀한 변증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특히 『신도의 공동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즉 “공동체”, “함께 있는 날”, “홀로 있는 날”, “섬김”, “고해”와 “성만찬” 등을 통해

83) Stefan Wick, *Sucht den Herrn und ihr werdet leben: Gottsuche in Dietrich Bonhoeffers Schrift "Gemeinsames Leben" und der Benediktsregel*(Münster: Lit Verlag, 2006), 35.

84) DBW 14: 77.

85) Ruth Gütter, 앞의 책, 50.

86) 슈테판 빅은 당시 핑켄발테의 세미나에 참여했던 짐머만(W. D. Zimmermann)이 재구성한 하루일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오전6:55-기상, 침묵; 오전7:30-예배, 정리, 그 이후 아침식사; 오전8:30-묵상시간; 9:00-그리스 신약성경의 번역; 오전9:30-강의들, 연습들; 낮12:30-노래(찬양); 오후13:00-점심식사, 그 이후 자유시간; 15:30-오후 티타임, 그 이후 자신의 일들; 18:00-성경구절들을 공부; 19:00-저녁식사, 그 이후 계획에 따라 진행; 21:45-저녁예배; 22:15~23:30- 침묵의 시간. Stefan Wick, 앞의 책, 34-35.

87) Ruth Gütter, 앞의 책, 50.

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외부로 향한 내부로의 집중”은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강하게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을 강조하지만, 그 삶이 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다른 형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외부로 향하는 역동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비록 본회퍼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⁸⁸⁾ 『나를 따르라』에서 드러나는 세상에 대한 싸움은 삶의 공간인 세계로부터 도피를 위한 투쟁이나 분리가 아니라 죄로 물든 세상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이다.⁸⁹⁾

IV. 나가는 말 - 한국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갖는 의의

1) 지금까지 본회퍼가 말한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등장하였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를 1935년 이후 목회자 후보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핁켄발데 신학원에서 실천한 모습이나 신학적 논의들, 즉 『나를 따르라』와 『신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⁹⁰⁾ 살펴보았

88) 다음 책을 참고하라. Ernst Feil, *Die Theologie Dietrich Bonhoeffers. Hermeneutik - Christologie - Weltverständnis* (Mainz: Chr. Kaiser Verlag, 1971), 275, 284; Hanfried Müller, *Von der Kirche zu Welt, Ein Beitrag zu der Beziehung des Wortes Gottes auf die societas in Dietrich Bonhoeffers theologischer Entwicklung*(Hamburg-Bergstadt: Hebert ReichEvang. Verlag, 1966), 241.

89) Günter M. Prüller-Jagenteufel, *Befreit zur Verantwortung. Sünde und Versöhnung in der Ethik Dietrich Bonhoeffers*(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2004), 206.

90) 본 논문에서는 『나를 따르라』와 『신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본회퍼의 “수도원적 영성”은 이 두 권의 책 외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간단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윤리학』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두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하나의 현실’이 있다고 한다. 이 관점은 우리가 위에서 말한 “삶의 전 영역의 수도원화”와 같은 의미의 다른 신학적인 표현일 것이다. 하나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형상을 취하고 계시는지에 묻는 것은 본회퍼가 강조한

다. 이제 본회퍼가 말한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한국교회에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2) 위에 언급한 것처럼 수도원이 처음으로 발생한 교회사적인 배경을 보면 당시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여 세속화의 길로 나아갈 때였다. 그리고 수도원이 세상과 결탁하여 수도원적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도 또

수도원적 영성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윤리학』 후반부에서 다룬 “책임”의 주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응답으로 수도원적 영성을 추구하는 본회퍼에게도 중요한 주제이다. 그리고 『저항과 복종』에서도 수도원적 영성의 흐름은 계속된다. “진정한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는 표현은 본회퍼가 말한 수도원적 영성과 동일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 목적과 자기 보호 속에 있는 교회는 화해하고 구원하는 말씀들을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의 말들은 영향력이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다. 자기 언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종교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기독교적인 전통언어들을 가장 현실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오늘날 오직 두 가지 것, 즉 기도하고 인간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외부를 향한 내부로의 집중”이 강조하는 것과 동일하다. 안드레아스 판그리츠는 “기도 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을 “궁극이전의 것과 궁극적인 것”의 관계 안에서 설명한다. 기도는 신앙 안에서 비밀들의 차원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과 일치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순종의 차원인데, 궁극이전의 것과 일치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판그리츠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진 신학적인 용어들, 그러니까 ‘화해’, ‘구원’,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해 사람들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본회퍼가 수도원적 영성에서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이외에도 “세상과의 깊은 대화”, “작업가설로서 하나님 이해를 피하는 것”, “차안성(Diesseitigkeit)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적인 비밀들을 세속화 앞에서 보호하려는 “신앙비밀훈련(Arkandisziplin)을 다시 요구 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등은 수도원적 영성을 가장 현실적인 상황에서 고민하고 추구하는 본회퍼의 사상의 또 다른 언어들이 것이다. Dietrich Bonhoeffer, 정지런, 손근태 옮김, 『저항과 복종』(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특히 556; 그리고 본회퍼의 옥중신학을 정리한 책으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Daniel Gerte, *Authentische Spiritualität in den Gefängnisbriefen Dietrich Bonhoeffers. Kriterien für Geistliche Begleitung heute*(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14), 141-181; 안드레아스 판그리츠(Andreas Pangritz)가 2014년 11월 10일 우트레이트(Utrecht)의 “Bonhoeffer Werkgezelschap Nederlandstalig”에서 행한 강연논문, “Zu Dietrich Bonhoeffers Verständnis der Arkandisziplin”, http://www.dbonhoeffer.eu/Pangritz_Zur%20Arkandisziplin.pdf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나 순수한 수도원 전통을 이어갔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중세교회에 속한 수도원들, 특히 특정한 공간 가운데 있던 수도원들이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었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수도원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렇게 개신교 안에서는 수도원의 전통이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개신교 수도원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영향은 미미했다. 원래 수도원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약해진 상태였다.

3) 본회퍼가 1930년대 경험한 시대의 교회도 히틀러 지배 아래서 국가화 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발생한 역사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개신교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오해들 때문에 발생하였다.⁹¹⁾ 신학적인 오해들 중의 하나는 루터가 강조한 칭의이론이 후기 루터주의자들(Postlutheraner)에 의해서 오용(오해)되었다는 점이다. 루터는 언제나 신앙(Glauben)과 함께 제자도를 밀접한 관계성 안에서 다루었지만, 후기 루터주의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은혜(Gnade)는 값싼 것이 되었다고 본회퍼는 주장한다. 이런 은혜와 신앙의 잘못된 이해는 “나치 제국을 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초래하였다”고⁹²⁾ 본회퍼는 주장한다. 이런 교회의 세속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본회퍼는 다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새로움에 대한 갈망의 형태를 찾는 중에 그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수도원의 방식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위에서 논의한 4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91)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Kang. An II, 앞의 책, 36-40을 참고하라.

92) DBW 4, 37-38ff.

4) 우선 한국교회를 논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한국교회가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에서 실시한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⁹³⁾ 결과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비록 기윤실 자료만을 사용한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이번 신뢰도 여론조사가 어떤 평가보다 객관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기윤실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내린 종합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시민단체이고, 종교기관은 제3순위로 위치한다는 것이다. 종교 중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종교 1순위로 가톨릭이, 그 다음으로 불교, 3순위로 기독교가 그 뒤를 따랐다. 이런 순위들이 보여주듯이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해 개선되지 못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 수준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보통이하로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의 한국교회 신뢰도 점수는 그 동안 조사된 점수 중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 금년의 한국교회 신뢰도 점수는 2008년에 나타났던 가장 낮은 신뢰도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보통 이하의 낮은 신뢰도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개선되지 않고 방치된 도로가에는 깨끗한 도로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이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한국교회에도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미 신뢰도가 깨어진 상황에서 어떤 유리창을 고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

9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발표 자료집, 2017. 이 설문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총1000명의 표본 규모로 2017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주)지앤컴리서치에서 실시하였다.

색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⁹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재정사용이 1순위로 선택되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재정 사용이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원리에 의해 지출되었음을 알리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재정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은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전일적 자본제의 질서 속에 깊숙이 들어와 맘몬의 놀이판에 깊숙이 침윤되어 온 것이 대체적인 현실이다. 그러한 증상의 대표적인 예로 개교회주의와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론할 수 있으며, 그렇게 축적된 자본을 통해 자기 동일성의 체계를 고착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제 자신의 폐쇄적 정체성과 기득권을 보존, 확대하려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이러한 현상을 잘 증명해준다.”⁹⁵) 그 다음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응답자들은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48.3%)을”, “정직(28.3%)”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것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고, 교회와 일터의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 때문에 야기되는 사회적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가 사회적인 봉사는 많이 하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많이 잃어버린 것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⁹⁶)

94)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발표 자료집, 85.

95) 차정식, 『기독교 공동체의 성서적 기원과 실천적 대안』(서울: 짓다, 2015), 28; 또한 박영신 교수는 “경제주의의 추세를 교회가 철저히 반영하고 오히려 그 원리를 후원하고 있었다. 교회마다 물질적 풍요와 여유를 찾기에 급급하고 기독교의 부흥과 영향력을 교회 (인)수와 헌금액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모든 것을 물량적으로 측정하며 교회 화원의 가치는 물질적 축복을 비는 신앙(?)으로 넘치게 되었다”고 말한다. 박영신 외,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서울: 한들출판사, 2006), 115-116.

96)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발표 자료집, 73; 정원범 교수는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공공성의 상실에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3가지를 제언하고 있다. 즉 “기독교 윤리에 대한 끊임없는 실천”, “기독교 공동체 내의 하나 됨”, “공동체 외부와의 소통”⁹⁷⁾이다.

5) 기윤실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제언하는 3가지를 위해 우리가 위에서 논의한 본회퍼의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많은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윤리에 대한 끊임없는 실천”은 “산상수훈” 말씀의 구체적 실천과 삶의 전 영역의 수도원화를 통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순수한 말씀의 실천인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내의 하나됨”은 “새로운 수도원 운동”에서 강조하는 “말씀과 공동체”의 역동적인 관계성을 한국교회가 회복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외부와의 소통”은 “새로운 수도원 운동”에서 핵심가치로 여기는 “외부를 향한 내부로의 집중”의 방향성을 가진다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더 좋아질 것이다.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성의 상실 원인으로 7가지를 제시한다. 그것은 “개인주의적 구원 이해”, “이분법적 사고”, “근본주의”, “샤머니즘과의 결탁”, “유교문화와의 결탁”, “경제주의(자본주의)와의 결탁”, “국가와의 결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공성의 회복의 대안으로 ‘사회선교’를 주장한다. 정원범, “한국교회의 공공성 위기와 기독교의 사회선교”, 『기독교사회윤리』 제27집(2013), 335-368.

97) 위의 책, 86-89.

참고문헌

- 강안일, “말씀과 공동체의 관계-본회퍼의 저작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제48집 (2016)
- 고재길,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에 나타난 제자의 윤리”, 『장신논단』 45권 2(2013)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발표 자료집, 2017.
- 김선영, “16세기 종교개혁가들과 수도원 개혁”, 『기독교 사상』, 675 (2015)
- 김중서, 『종교 사회학』(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김현수, “디트리히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에 대한 하나의 공적인 읽기”, 『신학과 사상』 제160권(2013)
- 김홍일, “한국교회의 문제와 수도원 영성의 재발견”, 『기독교 사상』, 675 (2015)
- 남성현, “수도적 영성과 전통이 개신교에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 『기독교 사상』, 675 (2015)
- 박상덕, 『동, 서방 교회 수도원 운동을 통한 기독교 영성의 고찰』 박사학위 논문(경 기도: 성결대학교, 2011)
- 박영신 외,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서울: 한들출판사, 2006)
- 박효섭, “현대 세계와 수도원 영성”, 『기독교 사상』, 675 (2015)
- 배덕만, “한국개신교회와 수도원 운동”, 『기독교 사상』, 675 (2015)
- 민경배, “수도원 운동과 교회 정화”,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서울: 연세대학교, 1994)
- 손은실, “중세 수도원의 빛과 그림자 ”, 『기독교 사상』, 675 (2015)
- 유정우, “수도원 운동의 역사적 고찰과 신학적 이해”, 『논문집(평택리뷰)』(경기: 평택대학교, 1992)
- 이덕주, “한국 개신교 수도원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맥락”, 『기독교 사상』, 675 (2015)
- 이형기, “하나님 나를 희망하는 교회론과 제정의 사용”, 『목회와 신학』 통권 328(2016. 10)
- 이충범, “수도원의 낮과 밤”, 『기독교 사상』, 675 (2015)
- 정원범, “한국교회의 공공성 위기와 기독교의 사회선교”, 『기독교사회윤리』 제27집

(2013)

- 정용석, “수도원의 형성과 역사”, 『기독교 사상』, 682 (2015)
- 차정식, 『기독교 공동체의 성서적 기원과 실천적 대안』(서울: 짓다, 2015)
- 최형근, “수도원 운동에 나타난 선교” 『교수논총』17(부천: 서울신학대학교, 2005)
- Bethge, E. 김순현 옮김, 『디트리히 본회퍼: 신학자-그리스도인-동시대인』(서울: 복있는 사람, 2014)
- Bonhoeffer, Dietrich. 강성영 옮김, 『창조와 타락』(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Bonhoeffer, Dietrich. 유석성 옮김, 『그리스도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Bonhoeffer, Dietrich. 손규태, 이신건 옮김, 『나를 따르라』(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Bonhoeffer, Dietrich. 정지련, 손규태 옮김, 『신도의 공동생활. 성서의 기도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Bonhoeffer, Dietrich. 정지련, 손규태 옮김, 『저항과 복종』(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Brooke, Christopher. 이한우 옮김, 『수도원의 탄생: 유럽을 만든 은둔자들』(과주: 청년사, 2006)
- Dramm, Sabine. 김홍진 옮김, 『본회퍼를 만나다-그의 삶, 신앙, 신학, 사상 이해하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Frank, Karl Suso, 최형걸 옮김,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서울: 은성, 1997)
- Metaxas, Eric. 김순현 옮김, 『디트리히 본회퍼』(서울: 포이에마, 2011)
- Wilson-Hartgrove, Jonathan, 손승우 옮김,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찾은 그리스도인 본연의 삶』(서울: 비아, 2016)
- Dietrich Bonhoeffer, Dietrich Bonhoeffer Werke, hg. v. E. Bethge, E. Feil, Chr. Gremmels, W. Huber, H. Pfeifer, A. Schönherr, H. E. Tödt, I. Tödt, München 1986-1991(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2-1999). 이 후부터는 본회퍼의 전집의 표시를 'DBW'로 사용한다.
- DBW 10: Barcelona, Berlin, Amerika 1928-1931
- DBW 13: London 1933-1935

DBW 14: Illegale Theologenausbildung: Finkenwalde 1935-1937

DBW 16: Konspiration und Haft 1940- 1945

An Il, Kang. Von der “Nachfolge” zur “Ethik” der Verantwortung. Die Bedeutung der ethischen Konzeptionen Dietrich Bonhoeffers für die Theologie und Kirche in Südkorea(Münster: Lit verlag, 2014)

Bethge, E. Dietrich Bonhoeffer. Theologe - Christ - Zeitgenosse((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9. Auflage 2005)

Bloth, Peter C. “Berneuchen”, in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vierte, völlig neu bearbeitete Aufl., hg. von K. Galling/ D, S, Browning/ B. Janowski/ E. Jüngel(Tübingen: Mohr Siebeck Band 1, 1998), 이후 “RGG”4 로 사용

Denzler, G. / V. Fabrizius, Die Kirchen in Dritten Reich. Christen und Nazis Hand in Hand?, Band 1: Darstellung(Frankfurt am Main, 1984)

Feil, Ernst. *Die Theologie Dietrich Bonhoeffers. Hermeneutik - Christologie - Weltverständnis*(Mainz: Chr. Kaiser Verlag, 1971)

Gerte, Daniel. *Authentische Spiritualität in den Gefängnisbriefen Dietrich Bonhoeffers. Kriterien für Geistliche Begleitung heute*(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14), 141-181

Green, Clifford J. *Freiheit zur Mitmenschlichkeit. Dietrich Bonhoeffers Theologie der Sozialität*(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4)

Glütter, Ruth. *Innerste Konzentration für den Dienst nach außen*(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0)

Klein, Wassilios / Fairy v. Lilienfeld, “Mönchtum I. II”, in *Theologische Realzyklopädie*, hg. von G. Krause G.Müller, Berlin 23, 1994, 이후 “TRE” 로 약칭한다.

Luther, Martin. 최주훈 옮김, 『대교리문답』(서울: 복있는 사람, 2017)

Müller, Hanfried. *Von der Kirche zu Welt, Ein Beitrag zu der Beziehung des Wortes Gottes auf die societas in Dietrich Bonhoeffers theologischer Entwicklung*(Hamburg-Bergstadt: Hebert ReichEvang. Verlag, 1966)

Parpert, Friedrich. Das Mönchtum und die evangelische Kirche(München: Ernst Reinhardt, 1930)

- Prüller-Jagenteufel, Günter M. Befreit zur Verantwortung. Sünde und Versöhnung in der Ethik Dietrich Bonhoeffer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2004)
- Schlingensiepen, Ferdinand. Dietrich Bonhoeffer(München: C.H.Beck, 2003)
- Schödl, Albrecht. Unsere Augen sehen nach dir. Dietrich Bonhoeffer im Kontext einer asketischen Theologie(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6)
- Schmitz, Florian. *Nachfolge. Zur Theologie Dietrich Bonhoeffers*(Goettingen: Vandenhoeck&Ruprecht, 2013)
- H.E. Tödt. Theologische Perspektive nach Dietrich Bonhoeffer(München: Chr. Kaiser, 1993)
- Wick, Stefan. Sucht den Herrn und ihr werdet leben: Gottsuche in Dietrich Bonhoeffers Schrift "Gemeinsames Leben" und der Benediktsregel (Münster: Lit Verlag, 2006)
- Hauschild, Wolf-Dieter. Lehrbuch der Kirchen-und Dogmengeschichte Band I, Alte Kirche und Mittelalt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5)
- Zimmerling, Peter. Bonhoeffer als Praktischer Theologie(Göttingen: Vandenhoeck& Ruprecht, 2006)

논문투고일: 2017년 02월 28일

심사게시일: 2017년 0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7년 04월 07일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본회퍼가 1935년 1월 15일의 한 편지에서 밝힌 “새로운 수도원 운동”(방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회퍼가 가진 수도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서술하되 수도원 운동을 ‘왜’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1935년 이후로 그의 신학적인 활동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연구하였다. 특히 1935년 이후 목회자 후보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핑켄발데 신학원에서 실천한 모습이나 신학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즉 『나를 따르라』와 『신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다. 첫째,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산상수훈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 둘째,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삶의 전 영역의 수도원화이다. 셋째,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말씀과 공동체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 있다. 넷째,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공동의 삶을 기반으로 하는 “외부를 향한 내부로의 집중”의 방향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본회퍼가 말한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디트리히 본회퍼, 새로운 수도원 운동, 『나를 따르라』, 『신도의 공동생활』, 산상수훈, 삶의 수도원화, 말씀과 공동체, 외부로 향한 내부로의 집중, 한국교회
